

사업비 못쓰고 일정 늦춰져...질병청 사업 의지 있나

장성국립심뇌혈관센터 빨간불
질병청 "사업 규모 확대 필요"
전남도에 사업 재추진 요구
전남도는 부지 선매입 등 주장

질병관리청이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계획비와 부지매입비 등 2021년도 예산 44억원을 쓰지 못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이월시켜 사용하거나 오히려 내년 예산에 증액해야 할 수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약하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계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올해 예산의 사용 또는 이월, 내년 예산 포함 120억원 반영, 일부 부지 선매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예산이 기존 49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고, 근무 인원 규모도 5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기재부, 행안부 등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역 정치권, 전남도 등의 꾸준한 노력과 요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전남도 등은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과 시설 장비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과 충청권이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전남 유치의 당위를 설득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2021년 10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 23.5%) 전남에 국립심뇌혈관센터가 터잡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 논리로 제시했다.

14년에 걸친 전남도와 장성군의 노력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을 대선 공약사업으로 반영했다. 집권 이후에는 국정 100대 과제 목록에 올랐다. 대통령 공약 사업에 오르면서 사업은 순항했고, 지난해 말 2021년 예산에 실시계획비 21억원, 부지매입비 23억원 등 44억원이 반영됐다.

사업 대상지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

산단 일원으로 2025년까지 완공 목표다.

사업부지는 2만3000㎡ 규모(약 7000평), 총 사업비는 49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역할에 대해 혁신적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 환경 조성,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신모델 개발, 희귀 난치성 심질환 관리 기반 강화, 세계적 전문가 양성 등을 제시해왔다.

주요 기능으로는 연구, 진료, 예방 및 재활 기능, 정책관리 및 기술지원, 교육 등 5가지를 꼽았다. 2025년까지 국립심뇌혈관센터를 구축해 국내 심뇌혈관질환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심장이식, 희귀 난치성 질환, 초고난도 수술 등 국가적 관리에 필요한 진료와 임상 결과 도출에 힘을 쏟겠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계획이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위상에 대해 심장질환계 세계적 권위자이자 돼지야말로 알려진 정병호 전남대 의대 교수(심장질환 특성화연구센터장)는 "암으로 치면 국립암센터로 생각하면 쉽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단적인 예로 일본 도쿄는 1977년 오사카에 설립한 국립심혈관센터를 40년이 지난 지금도 '오사카에 빼앗겼다'고 표현한다"며 한국인 사망원인 2위에 오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진료 등 관리 필요성과 함께 의료산업 측면에서의 위상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전남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막판까지 안정적으로 국립심뇌혈관센터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마무리된 용역을 거쳐 당초보다 총사업비는 1500억원 규모로, 인력은 200명대에서 500명대로, 사업 부지 역시 3만8000㎡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사업비 44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 역시 이같은 사업안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전남도에 최근까지 설명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담양·영광·함평·장성)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시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윤석열에 '1대1 회동' 제안... "민생 문제 논의해보자"

윤 "생각해보겠다" 즉답 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민생 문제 논의 등을 위한 '1대1 회동 및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에서 "정치세력간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낮게 할 수 있느냐는 민생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대1 회동과 관련, "각자 추진하는 정책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 민생이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민주공화국에선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일할 머슴이 필요하다. 누가 국민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사람이 누군지 정치세력이 어디든 판단하고 싶어 한다"며

서 "필요한 정보제공 측면에서 각자 철학, 가치, 비전, 정책과 실력·실적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할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 정책토론회의 장을 가져 보자는 제안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쎄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른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컨벤션효과? ...국민의힘 지지율 46% 최고치

리얼미터 조사...민주당 25%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5.9%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이전 최저치는 지난 4월 넷째주의 27.8%였다.

지지율 하락 폭은 연령대별로는 30대(7.3%포인트 ↓)와 70대 이상(6.5%포인트 ↓)에서 컸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40대에서도 5.2%포인트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권에서 지지율이 7.2%포인트 떨어졌다. 그 밖에 충청권(6.7%포인트 ↓)·서울(6.2%포인트 ↓) 등에서 하

락세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4%포인트 상승한 46.0%를 받으며 리얼미터 조사상 정당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선후보 선출 등 컨벤션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 서울(8.2%포인트 ↑)·충청권(6.6%포인트 ↑)·호남권(5.9%포인트 ↑)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5.2%포인트 ↑)·40대(4.4%포인트 ↑)·60대(3.7%포인트 ↑)에서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34.2%를 기록하며 최저치에 근접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는 지난 4월 넷째주의 33%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43%·이재명 31.2%

KSOI 여론조사...안철수 4.7%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3.0%, 이 후보는 31.2%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7%,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4% 순이었다. 윤 후보의 지지도는 전주 조사보다 10.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같은 기간 2.0%포인트 내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문 대통령 축하난 의도적 회피?

이철희 수석 예방 일정 이유 취소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이 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양측 실무자 간에 협의가 됐다"고 윤 후보 일정 때문에 이 수석에게 양해를 구하고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윤 후보를 만나 후보 선출을 축하하고 축하 난을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윤 후보 측은 당 최고위와 의원총회 인사, 현정회 방문에 이어 캠프 해단식 참석까지 종일 일정 이빻빻해 도중에 이 수석을 자분히 만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대적점에 섰던 윤 후보가 이 수석과의 대면이라는 절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목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